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영세기업 “울고 싶어라”

르포 - 새 고용정책 앞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

광주시 북구에서 특수강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현재 3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서너명을 줄여야 한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정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근로자 수를 줄일 수 없는 업체나 업종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고용정책을 앞두고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기일을 맞추려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2교대, 3교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 충원돼야 하지만 최저임금까지 인상은 되는 데 인력까지 추가 충원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차체 부품을 제조하는 B업체 관계자는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환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 자동화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자동화 설비도입에도 만만치 않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고통스러운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동구 총장로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 C씨는 내년부터 크게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하루 6시간 고용하던 아르바이트생 정리를 고민중이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6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오후 5시부터 문을 닫는 오후 11시까지 6시간 등 총 8시간을 업주인 그가 맡아 일하지만,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종일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영일 필수 인원이 고정적인 편의점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를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고 업주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중소기업 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역·업종별로 점진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국민의당 통합 갈등 법정다툼 비화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측에서 안철수 대표 측이 추진하는 통합 찬반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놓고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당내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투표를 실행된다 하

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취를 연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고, 당시 33.3%의 투표율에 미달해 시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위임하는 데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경진·김광수·김종희·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상돈·이용주·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호·조배숙·천정배·최경환·황주홍 등 20명이다. 국민의당 소속 지역의원장 17명도 동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갑다 추위야” 성탄절인 25일 광주시청 문화광장 야외스케이팅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위를 잊은 채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군 장래인구추계 (단위:명,%)

시군	2015년	2035년	2015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남	1,796,578	1,784,651	-11,927	-0.7
목포	239,412	209,232	-30,180	-12.6
여수	274,148	252,276	-21,872	-8.0
순천	263,861	268,987	5,126	1.9
나주	88,843	122,029	33,186	37.4
광양	144,784	144,021	-763	-0.5
담양	43,718	48,094	4,376	10.0
곡성	28,745	29,423	678	2.4
구례	24,470	27,835	3,365	13.8
고흥	62,774	61,342	-1,432	-2.3
보성	40,858	39,595	-1,263	-3.1
화순	61,680	60,017	-1,663	-2.7
장흥	37,138	39,479	2,341	6.3
강진	35,318	34,336	-982	-2.8
해남	69,478	65,191	-4,287	-6.2
영암	61,635	52,569	-9,066	-14.7
무안	80,674	83,430	2,756	3.4
함평	31,508	32,274	766	2.4
영광	51,119	51,899	780	1.5
장성	41,962	45,575	3,613	8.6
완도	48,524	47,901	-623	-1.3
진도	29,547	29,227	-320	-1.1
신안	36,382	39,919	3,537	9.7

광주일보가 이끈 2017 5대 성과 ▶2년

광주 새벽 인력대기소가 보니 ▶6면

다시보는 2017 KIA-투수 핵터 ▶20면

2035년 전남 상주인구 178만5천명

전남 시·군 장래인구 추계

2015년보다 1만2천명 감소

순천, 2020년 1위 여수 제칠 듯

혁신도시 나주 인구증가율 1위

성장동력·경제 여건 악화 우려

2035년 전남 상주인구는 178만5000명으로 예측됐다. 2015년 대비 1만2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전남에서 상주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순천으로, 2020년이던 1위인 여수를 제칠 것으로 전망됐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는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가 발표한 ‘전남 시·군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전남 상주인구는 178만46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179만6578명)보다 0.7%인 1만1927명 줄어든 것이다.

이번 인구추계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남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를 추산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현상을 반영해 향

후 20년간 시·군별 상주인구를 예측했다.

시·군별로는 순천이 전남 전체 인구의 15.1%인 26만898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1위인 여수는 2020년 순천에 따라잡고, 2035년(25만2276명)이면 1만 671명 격차로 벌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은 2015년보다 13.8%가 늘겠지만, 상주인구 2만7835명(1.6%)으로 여전히 꼴찌를 면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등 11개 시·군은 인구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나주는 혁신도시 영향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돼 2015년(8만8843명) 대비 37.4% 증가한 12만2029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했다.

총인구 규모는 20년동안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각각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소년인구는 2015년 24만명보다 25.3%인 1만7900명이 줄어든 17만9000명으로 나타나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도 118만7000명보다 20.2%인 24만명이 감소한 94만7000명으

로, 성장동력을 상실해 경제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순별 정중앙 연령인 중위 연령은 57.2세가 돼 2015년(45.4세)보다 무려 11.8세가 늘어난다. 특히 고령은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중이 53.8%로 고령화가 가장 심할 것으로 진단됐다. 인구 구성이 비교적 젊은 광양도 2028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전남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최병만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장래인구 추계는 도에서 최초로 2035년까지의 미래인구 통계를 객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와 시군의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혁신적 마스크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NEW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건강하지 않은 피부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삼에서 찾은 강력한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 자음생마스크

인삼 뿌리의 핵심 에너지를 담아 집중적인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음생크림의 부드러운 그대로를 담은 이중 구조 더블 랩핑 시트™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자음생마스크로, 경량해보이지 못한 혁신적인 마스크 인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텔레그램: @sulwhasoo • 고객센터: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